

# 디지털기기의 이용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를 중심으로

Effects of Digital Device Use on Social Participation

: Focused on Seoul, South Korea

조민지\*

Minji Cho

## ■ 목 차 ■

- I. 서론
- II. 선행연구
- III. 연구의 방법
- IV. 분석결과
- V. 결론

디지털기기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을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확장, 정보의 공유가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을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기기의 이용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2020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를 활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디지털기기 이용을 통한 효용들이 사회참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불공정 인식의 매개효과에 주목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디지털기기를 통해 정보공유가 증가한 사람일수록 우리 사회가 더욱 불공정하다고 인식했고, 이것이 그들의 사회참여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디지털기기를 통해 의사소통 및 네트워크가 확장된 사람들 역시 사회참여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효과는 불공정 인식의 매개효과로 인해 다소 상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참여의 동인으로써 디지털기기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론적·정책적 접근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제어: 디지털기기, 사회참여, 불공정 인식, 구조방정식

\* Portland State University, Urban Studies 박사과정 재학  
논문 접수일: 2022. 8. 29. 심사기간: 2022. 8. 29. ~ 2022. 9. 19. 게재확정일: 2022. 9. 1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digital device use on social participa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more on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injustic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tility of using digital devices and the degree of social participation.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employs the 2020 Seoul Survey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 people who share more information through digital devices tend to perceive more unfair our society. And, this tendency makes them more active in social participation. In addition, people with expanded communication and networks through digital devices are more likely to be more active in social participation. This effect, however, is somewhat offset b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erception of injustices. These results will provide new insights into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roaches that focus on the role of digital devices as a driver of social participation.

□ Keywords: Digital Device, Social Participation, Perception of Injustice, Structural Equation Model

## I. 서론

2000년대 이후 디지털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공하는 「인터넷 이용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가구 인터넷 보급률은 2000년 49.8%에서 2008년 80.6%로 증가했으며, 이후 2021년까지 80%대를 유지하고 있다(통계청, 2022a). 더 나아가,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2019년 기준 96.2%로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통계청, 2022b).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특히 영향을 미치는 부문은 커뮤니케이션과 정보전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카스텔(2014)에 따르면, 발신자와 수신자가 1대 1로 상호작용하던 개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텔레비전과 신문 등의 등장으로 한 명의 발신자가 다수의 수신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전했으며, 인터넷 기술의 확산으로 다수가 다수와 상호작용하는 ‘매스 셀프 커뮤니케이션(mass self-communication)’까지 가능해졌다(pp. 121-122). 매스 셀프 커뮤니케이션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생산자와 사용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어떠한 콘텐츠를 소비할지에 대해 스스로 선별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는 상호작용체계를 의미한다(카스텔, 2014, pp. 121-142). 다시 말해, 매스 셀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가상공간의 각종 플랫폼에서 각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생산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기도 하며, 물리적 공간의 제약과 관계없이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자 이것이 사람들의 사회참여<sup>1)</sup>를 증가시키는 동인으로 기능하여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역시 증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원호 외(2021)는 웹 2.0 시대에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적 의사결정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 중심적 거버넌스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송경재(2020)는 디지털기기<sup>2)</sup>를 이용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사회참여는 단순히 가상공간에서의 활동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

1)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참여’라는 용어 대신 ‘정치참여(political participation)’, ‘정치행동(political behavior)’, ‘주민참여(civic participation)’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이들 용어를 「서울 도시정책지표조사」에서 사용한 ‘사회참여’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2) 디지털기기는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신호로 처리하는 기계(우리말샘, 2022)”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서울 도시정책지표조사」와 같이, 디지털기기를 PC, 휴대전화, 태블릿PC를 일컫는 것으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나라 오프라인 영역으로도 연계되어 다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실증했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는 디지털기술의 발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이 새로운 생각과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줌으로써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켜 줄 수는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약한 유대를 기반으로 하므로 강한 의무감, 신뢰성, 호혜성 등이 요구되는 실질적인 사회참여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Gladwell, 2010; Harlow and Guo, 2014; Putnam, 2000).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발표된 국내 연구들의 메타분석을 수행한 문원기·이수범(2015) 또한 소셜미디어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그들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밝힌다. 이와 같은 상반된 견해는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사회참여 사이의 관계를 더욱 정교하게 실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공간적 범위로 하여 디지털기기의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긍정적 효용인 정보공유 증가와 의사소통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이 사회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디지털기기 이용의 효용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불공정 인식'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불공정 인식은 개인의 사회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동기 중 하나로, 특히 최근 한국사회가 '공정'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이설아, 2021), 디지털기기 이용과 사회참여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연구 설계는 단순히 '디지털기기의 이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회참여를 많이 하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디지털기기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떠한 효용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검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해당 효용이 사회참여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 II. 선행연구

### 1. 디지털기기의 이용과 사회참여

디지털기기를 통한 서비스의 이용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의 초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의 사용 목적을 구분하여 디지털기기의 이용과 사회참여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들은 디지털기기 사용자들의 (1) 정보를 얻기 위한 행위(information seeking)와 (2) 자기 표현적 행위(expressive

ways)에 주목한다(Skoric and Zhu, 2016). 정보를 얻기 위한 행위는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뉴스 또는 다른 사람들의 게시글을 읽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자기 표현적 행위는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에 뉴스와 정보, 그리고 이에 대한 자기 생각을 공유하고, 댓글, 게시글, 온라인 토론회 등에 참여하여 자신의 정치·사회적 의견을 표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일부 연구들에서는 이 두 가지 목적 모두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Lee and Myers(2016)은 정보추구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디지털기기의 사용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회참여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실증했다. 또한, 정보추구의 목적이 있지 않더라도 소셜미디어 내에서 이전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면 사회참여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닐 경우, 소셜미디어의 사용빈도가 사회참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Gil de Zúñiga et al.(2012)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일수록, 온라인 토론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온·오프라인 사회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주장한다. 그중에서도, 소셜미디어를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인의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Neo(2019)는 두 가지 목적 사이의 연계성에 주목하여,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적 정보를 소비하는 행위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촉진하고, 이것이 결국 사회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실증한다.

반면,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디지털기기 사용의 목적에 따라 디지털기기 이용과 사회참여 사이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한다. 예를 들어, Skoric and Zhu(2016)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를 뉴스 또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정치집회나 정당을 위한 자원봉사 등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온라인 토론에 참여하는 등 자기 표현적 행위를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오프라인 사회참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힌다. 이와 유사하게, Choi(2016) 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스 내용을 공유하거나 이와 관련한 게시글을 작성하는 사람일수록 온·오프라인에서의 사회참여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반면, 디지털기기를 통해 뉴스를 읽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등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이 주류라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im and Chen(2016)은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모두 사회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그 경로에는 차이가 있음을 실증했다. 블로그에서는 유사한 생각과 관점을 지닌 사람들과의 결집이 가능해지므로 온라인 사회참여가 증가하게 되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정치·사회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기회가 증가함으로써 온라인 사회참여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온라인에서의 사회활동들과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전통적인 형태의 사회참여 사이의 관계에 관해 검증한 연구들에서도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다. 이들 연구는 정치적 정보획득을 위하여 소셜미디어 또는 포털사이트를 사용하는 것, 온라인 토론회나 청원 등의 참여, 소셜미디어에서 정치인들과 연락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행위, 정치·사회적 뉴스나 의견을 담은 게시글 작성 등의 온라인 행동들과 물리적 공간에서 일어나는 집회, 시위, 정치적 행사 등에 참여, 정당 가입, 정당후원금 납부, 정책토론회 참여, 자원활동 등의 오프라인 형태의 사회참여에 주목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koric and Zhu(2016)는 디지털기기 사용의 목적에 따라 오프라인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Lu and Myrick(2016)는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이전에 자주 노출되는 것은 정치·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등 가벼운 사회참여는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기부나 자원활동과 같이 큰 노력이 필요한 사회참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사회참여 사이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Baek, 2015; Bode et al., 2014; Conroy et al., 2012; Petrovic and Besic, 2017).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거나 블로그를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것이 오프라인 사회참여를 촉진한다는 것이다(Bode et al., 2014; Choi and Kwon, 2019).

한편, 디지털기기 이용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적 성향 및 배경, 그리고 국가적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실증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우선, 개인적 특성에 주목한 연구들은 인종(Wang, 2022), 갈등회피의 욕구(Chan et al., 2021), 디지털기기를 이용하기 이전의 사회참여 정도(Baek, 2015), 디지털기기 이용에 의한 심리적 영향(Lu and Myrick, 2016) 등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Wang(2022)은 백인, 흑인, 히스패닉 참여자들 모두 뉴스를 읽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온라인 사회참여 수준이 높았지만, 이 효과는 백인 참여자들에게서 특히 크게 나타났으며, 흑인 참가자들은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이 효과가 크게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Baek(2015)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특히 정치적 메시지를 받은 빈도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선거에 참여할 의사가 높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나, 이 효과는 과거에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용자에게는 매우 미미하다고 주장한다. 더욱 넓은 맥락적 상황에 주목한 연구들은 디지털미디어에서 사람들 사이의 의견을 주고받는 행위는 참여자들이 약한 유대를 가진 관계일 경우에만 온라인·오프라인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하거나(Min and Wohn, 2018), 민주주의 발전 정도 등 국가적 맥락에 따라 이 둘의 관계성이 다를 수 있음을 검증했다(Chan et al., 2021; Vaccari and Valeriani, 2018).

## 2. 기존 연구의 한계

앞서 살펴본 ‘디지털기기 이용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은 디지털기기를 통해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또는 왜 디지털기기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사회참여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이들 연구는 디지털기기의 보급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점에, 디지털기기의 이용이 사람들의 사회참여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디지털기기 이용과 사회참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다시 말해, 디지털기기 사용자들의 내면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서 사회참여를 더욱 적극적(또는 소극적)으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디지털기기 이용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디지털기기의 보급 확대가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적 사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기기의 이용이 어떠한 이유로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참여에의 동기로 언급되는 다양한 요인 중 ‘불공정 인식’에 초점을 두 고자 한다. 이는 개인이 디지털기기를 이용함으로써 정보, 지식, 뉴스 등에 노출되는 정도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의 불공정 수준에 대해 높 게 인식하게 될 경향이 있고, 이는 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이끄는 동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초한다. Lu and Myrick(2016)는 디지털미디어에서 이전에 노출되는 것은 사용자 내면의 화와 걱정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슬로워크(2019)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거나 정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시민주도의 온라인 사회참여방식 중 하나인 시빅해킹(civic hacking)의 첫 번째 단계가 사회·정치적 이슈에 대 해 분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사회 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분노의 감정은 사회참여에 의 중요한 시작점이며, 이는 곧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것 역시 사회참여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전통적인 매체에 비해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는 기 성 권력의 부정의한 모습을 더욱 적나라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카스텔, 2014, p. 46), 이와 같은 매체를 통해 뉴스나 정보를 얻게 된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 수준을 더욱 높 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사회적 불공정함을 목도할 때 분노하게 되며, 이와 같은 감정을 집회, 시위와 같은 사회참여를 통해 드러낼 수 있다(카스텔, 2014, p. 44; 이설아, 2021). 더 나아가, 최근 한국사회는 ‘공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이설아, 2021), 특 히 본 연구가 초점을 두는 서울특별시는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선포할 정도로 공정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사회적, 정책적 관심도를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 디지털기기 이용과 사회참여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 Ⅲ. 연구의 방법

#### 1. 연구자료 및 범위

본 연구는 디지털기기의 이용을 통해 연계 되는 긍정적 효용들이 개인의 사회정의 인식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온·오프라인 사회참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2020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서베이)」 중 시민 조사를 활용한다.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는 서울시의 정책 수립에 도시 전반의 특성과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되는 설문조사로, 서울시 도시 변화 및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가치관 등의 변화를 조사한다(서울특별시, 2021).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는 2003년 11월을 시작으로 하여 2021년 말, 제19회까지 시행되었으며, 특히 2019년 제17회 조사부터는 기존에 수행되던 가구, 외국인 조사에 더하여 시민 조사를 새 항목으로 추가하였다. 그중에서, 본 연구가 사용한 제18회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는 2020년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구 방문면접조사 및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조사되었으며,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활용하여 총 5,000명의 표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가치와 의식 등을 조사한 자료이다(서울특별시, 2021)<sup>3)</sup>.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서울시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국민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더욱 직접적인 형태의 사회참여 수준은 높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기기의 발전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따라 정치·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이혜림·이영라, 2020). 예를 들어,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라는 온라인 소통창구를 통하여 국민이 정부에 대한 민원, 정책 제안,

3)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는 2021년을 기준으로 하는 제19회 조사가 가장 최근의 자료이며, 이 조사에 대한 원시 자료 역시 서울 열린 데이터 광장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조사에는 본 연구의 핵심 변수를 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디지털기기 이용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제18회 조사를 연구의 분석에 활용하게 되었다.

공익 신고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 중이며, 이에 더하여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국민의 청원에 대해 직접 답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웹페이지를 출범함으로써 국민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공론화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더욱이, 서울시는 ‘민주주의 서울’이라는 온라인 플랫폼뿐 아니라 ‘찾아가는 민주주의 서울’, ‘제안발굴 워크숍’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실제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등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서울특별시, 2022). 이와 같은 국민적, 제도적 관심도를 고려할 때 본 연구를 대한민국 서울로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2. 변수설정 및 연구모형

### 1) 종속변수: 온·오프라인 사회참여 경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사회참여 경험이다. 사회참여는 정책적 결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시민들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는 투표, 공청회 참가, 집회·시위의 조직 및 참여 등이 포함되어왔다(Deth, 2021). 하지만 최근, 디지털기기의 발전으로 인하여 사회참여활동은 다변화되고 있으며, 따라서 많은 연구에서는 온라인 정치토론에 참여하는 것, 뉴스 및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그리고 정치인들의 소셜미디어에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에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까지도 사회참여의 한 형태로 포함하고 있다(Dalton, 2015; Edgerly et al., 2018; Gibson and Cantijoch, 2013).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참여 경험이 라는 잠재변수의 측정을 위하여 2020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시민 조사 설문지의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 보기의 항목 중 직접 참여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기에서 참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합니다”라는 설문 문항의 다섯 가지 하위항목인 민원제안 및 제기, 정치 사회적 의견 달기, 서울시 정책토론회 참여, 정책 제안, 집회 또는 시위에의 참여 모두를 관찰변수로 포함하였다. 해당 항목은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0,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1로 코딩된 이분형 변수(binary variable)이다.

## 2) 외생변수: 디지털기기 이용의 긍정적 효과

본 연구의 주요 외생변수는 디지털기기 이용의 긍정적 효과이다. 특히, 본 연구는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개인에게 줄 수 있는 다양한 효용 중 정보공유의 기능과 의사소통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기능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0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시민 조사 항목 중 “디지털기기(PC,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 항목들에 대해 귀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을 활용하였다. 디지털기기의 정보 공유 효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항의 하위항목 중 “뉴스나 새로운 소식을 더 빨리 알게 되었다”, “더 많은 정보나 지식을 얻게 되었다.”에 대한 응답을 관찰변수로 포함하였다. 의사소통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효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거나 알게 되는 기회가 많아졌다.” 항목을 활용하였다. 각각의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음’은 1점, ‘보통’은 3점, ‘매우 그러함’은 5점으로 하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 3) 매개변수: 불공정 인식수준

본 연구는 디지털기기 이용의 긍정적 효용이 사회참여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매개변수로 불공정 인식수준을 포함한다. 불공정 인식수준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불공정’의 다양한 차원들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2020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시민 조사 항목 중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사항들이 어느 정도 평등 또는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오”의 다섯 가지 하위항목, 즉 교육기회, 취업기회, 법의 집행, 공평과세, 성평등에서의 불평등 인식수준 모두를 관찰변수로 포함하였다. 원자료에서는 각각의 항목을 ‘매우 불평등’을 1점, ‘보통’을 3점, ‘매우 평등’을 5점으로 하는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 해석의 용이성을 위하여 각 항목을 역코딩하여 불공정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큰 값을 가지는 변수로 재구성했다.

## 4) 통제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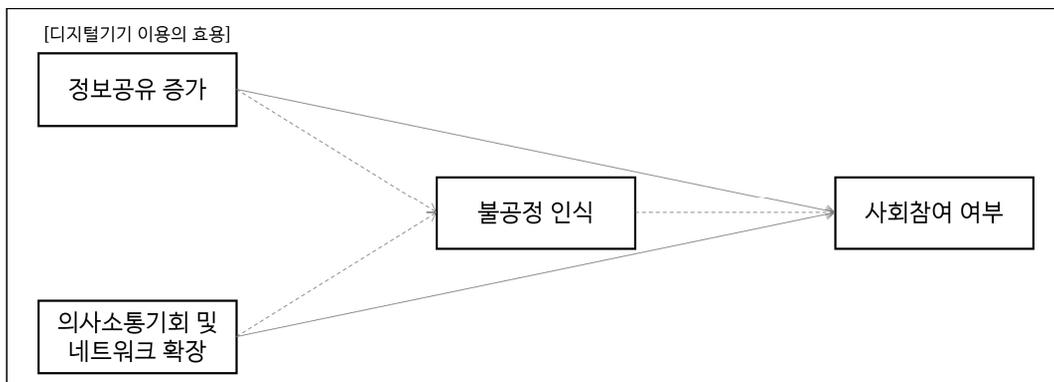
우종필(2015a)은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많은 국내 연구들에서 통제변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비판하며,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에서도 통제변수가 핵심 변수 간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관심 변수들의 관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자를 기준집단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코딩하였고, 교육수준은 학력과 졸업 상태 변수를 기준으로 교육년수를 나타내는 연속 변수로 환산하였다. 직업은 2020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시민 조사 공표자료에서 분

류 체계를 따르되, 관리전문직과 화이트칼라를 하나의 범주로 묶고, 기타 항목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연령은 출생연도를 2020년 기준 나이로 환산하여 계산하였고, 정치성향은 리커트 11점 척도로 조사된 결과를 중도, 진보, 보수로 나누고, 중도를 준거집단으로 하는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SNS 사용시간은 2020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 시민 조사 중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평균 이용 빈도와 1회 평균 이용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항목의 응답 결과를 연간 사용량으로 환산하였다.

### 5) 연구의 모형: 구조방정식

〈그림 1〉은 통제변수를 제외한 본 연구의 분석모형을 나타낸다. 실증분석에는 구조방정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이 사용되었다. 구조방정식은 변수 간 복잡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검증 가능한 통계적 방법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개념을 활용한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과 경로 분석(path analysis) 개념을 활용한 구조모델(structural model)이 혼합된 형태이다(우종필, 2015b, pp. 16). 구조방정식은 변수 간 상관관계의 총효과 뿐 아니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분리하여 통계적으로 추정 및 검증할 수 있으며, 관찰변수(observed variable)와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의 특성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우종필, 2015b, pp. 46). 모형의 추정에는 R의 *lavaan* 패키지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의 내생변수인 ‘사회참여 여부’가 이분형 변수이기 때문에 DWLS(diagonal weighted least squares) 추정량을 사용하였다(Rosseeel, 2022).

〈그림 1〉 연구의 모형



## IV. 분석결과

### 1. 응답자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20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의 시민 조사 응답자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 특성

구분		빈도 (명)	비율 (%)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성	2,414	48.3%	직업	관리자	207	4.1%
	여성	2,586	51.7%		전문가·관련 종사자	338	6.8%
연령	20대 이하	1,107	22.1%		사무 종사자	1,414	28.3%
	30대	877	17.5%		서비스 종사자	526	10.5%
	40대	884	17.7%		판매 종사자	441	8.8%
	50대	882	17.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5	0.1%
	60세 이상	1,250	25.0%		기능원·관련 기능 종사자	173	3.5%
교육 수준	무학	12	0.2%		기계조작·조립 종사자	86	1.7%
	초등학교 졸업 이하	90	1.8%		단순노무 종사자	133	2.7%
	중학교 졸업 이하	208	4.2%		학생	498	10.0%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19	32.4%	주부	812	16.2%	
	전문대 졸업 이하	693	13.9%	무직	343	6.9%	
	대학 졸업 이하	2,119	42.4%	기타	24	0.5%	
	대학원 재학 이상	259	5.2%	정치 성향	진보	1,489	29.8%
거주 지역	도심권	430	8.6%		중도	1,822	36.4%
	동북권	1,630	32.6%		보수	1,689	33.8%
	서북권	610	12.2%				
	서남권	1,470	29.4%				
	동남권	860	17.2%				

주: N=5,000

출처: 2020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시민 조사)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48.3%와 51.7%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본 설문조사가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이하가 22.1%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대의 분포는 고르게 분포되어있었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등

학교 졸업 이하와 대학 졸업 이하가 각각 32.4%와 42.4%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동북권(32.6%)과 서남권(29.4%)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심권(8.6%)과 서북권(12.2%)에 거주하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의 경우에는 사무 종사자가 28.3%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고, 주부(16.2%), 서비스 종사자(10.5%), 학생(10.0%)이라는 응답 역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정치성향의 경우에는 중도 36.4%, 보수 33.8%, 진보 29.8%로, '중도'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대체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응답자들이 서울시민들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분석 과정에서 2020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본가중치를 적용하였다.

##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 앞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지향적(data-driven) 방법인 탐색적 요인분석과는 달리,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관계를 분석 이전에 지정해 놓는다는 특징을 지닌다(우종필, 2015b, pp. 154-155). 특히 확인적 요인분석은 구조방정식 모델에 사용될 구성개념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적합한 방법으로 평가된다(우종필, 2015b, pp. 160-161).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될 세 가지 잠재변수의 신뢰성 및 타당성이 모두 확인되었다. 첫째, 세 잠재변수에 대한 크론바흐알파값은 각각 0.69, 0.81, 0.64로, 수용 가능한 범위인 0.6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는 각각 0.79, 0.82, 0.87로, 집중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값인 0.7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 구성한 세 잠재변수 모두 충분한 신뢰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둘째, 모든 관측변수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standardized factor loading)은 수용 가능한 범위인 0.5 이상이었으며, 대부분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0.7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또한, 통계적 유의성은  $p$ 값과 요인부하량에 대한 유의성(C.R.)을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는데, 두 값 모두 각각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은 일반적으로 0.5 이상이면 집중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간주하는데, 불공정 인식의 경우 그 값이 0.49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평균분산추출이 측정모델의 타당성에 대한 보수적인 추정치라는 점을 지적하며, 개념신뢰도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평균분산추출값은 0.5보다 다소 작아도 된다는 점을 언급한다(Fornell and Larcker,

198]; Lam, 2012). 이 결과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될 세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의 관계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표 2〉 참고).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C.R.	AVE	개념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값
디지털기기 이용의 효용 (정보공유)							
더 많은 지식·정보 획득	1.00	0.83			0.66	0.79	0.69
뉴스·소식 빠르게 접함	0.76 ***	0.65 ***	0.13	5.78			
불공정 인식							
교육기회	1.00	0.67			0.49	0.82	0.81
법의 집행	1.19 ***	0.77 ***	0.05	25.40			
공평 과세	1.03 ***	0.71 ***	0.04	26.49			
취업기회	1.05 ***	0.74 ***	0.04	28.43			
성평등	0.81 ***	0.54 ***	0.03	23.79			
사회참여 여부							
민원제안·제기	1.00	0.80			0.59	0.87	0.64
정치·사회적 의견 달기	0.96 ***	0.77 ***	0.04	22.40			
정책토론회 참여	1.05 ***	0.84 ***	0.04	25.56			
정책 제안	1.03 ***	0.83 ***	0.05	21.96			
집회·시위 참여	0.69 ***	0.55 ***	0.05	13.80			

주1: \*\*\*은 유의수준 0.01, \*\*은 유의수준 0.05, \*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크론바흐알파값을 제외한 모든 값은 표본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임<sup>4)</sup>

### 3. 구조방정식

#### 1) 모형적합도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설계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대부분의 모형 적합도 지수들이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모형의 절대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

4) 박현아(2021)는 표본조사 결과의 크론바흐알파값을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설계가중치를 반영하여 크론바흐알파값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비교적 최근 이루어졌으며 이론적, 실험적 증명이라는 점에서 현재 상용화된 통계패키지 중 이 접근방법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의 크론바흐알파값 역시 표본가중치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여  $\chi^2$  검정결과 통계량, GFI(goodness of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d error of approximation), 그리고 SRMR(standardized root mean square residual)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chi^2$  검정결과 통계량을 제외한 모든 지수는 높은 모형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충족하였다.  $\chi^2$  통계량은 1,578 (df=143, p<0.00)로 유의하게 나타나 모형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이는 본 연구와 같이 표본의 크기가 300 이상이거나 모형이 복잡한 경우에 좋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수들과의 종합적인 평가가 요구된다(Schermelleh-Engel et al., 2003; 우종필, 2015b, p. 363). 한편, 모형의 증분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수로는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CFI는 0.806, TLI는 0.911로, 사회과학 연구에서 모형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기준인 0.8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sup>5)</sup>. 절대 적합도와 증분 적합도에 대한 평가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상의 결과는 <표 3> 참고).

<표 3> 모형적합도

	절대 적합도				증분 적합도	
	$\chi^2$	GFI	RMSEA	SRMR	CFI	TLI
모형	1,578 (df=143, p < 0.00)	0.924	0.045	0.048	0.806	0.911
기준	p > 0.05	> 0.9	< 0.06	< 0.08	> 0.9	> 0.9

## 2)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첫째, 디지털기기 이용의 효용이 불공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효용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성을 나타냈다. 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기기 이용을 통해 새로운 뉴스나 정보를 더욱 많이 접하게 된 사람일수록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인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기기 이용의 결과 새로운 정보나 뉴스를 더욱 많이 접하게 된 사람은 다양한 사회적 이슈, 갈등, 관점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Lee and Myers, 2016),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슈에 대해 비교적 높게 인지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불공정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공정’은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서 많은 언론인, 정치인, 시민들에 의해 언급되고 있으므로, 디지털기기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거나 정보를

5) 일반적으로 CFI 지수는 0.9 이상이어야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과학연구 등에서 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높게 나타나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며 CFI 값이 0.8 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모델이라고 평가한다(Hair et al., 1998, Le Dang et al. 2014에서 재인용).

연계 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 이슈에 대해 더욱 빈번하게 노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반대로, 디지털기기의 이용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기회 및 네트워크가 확장된 사람일수록 우리 사회의 불공정 수준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성향과 감정, 사회적 맥락과 자신의 상황에 대한 상대적 인식 등의 영향을 받는데(이설아, 2021), 디지털기기를 통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 그리고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점에서(전재민, 2021), 디지털기기의 이용을 통해 의사소통기회가 확장되는 것은 불공정 인식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 4〉 경로분석 결과

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불공정 인식 ←				
디지털기기 이용의 효용	정보공유	0.102 ***	0.077 ***	0.039
	의사소통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0.091 ***	-0.125 ***	0.015
SNS 사용시간		0.000	0.024	0.000
정치성향	보수	-0.149 ***	-0.107 ***	0.032
	진보	0.079 **	0.056 **	0.033
교육수준		0.044 ***	0.177 ***	0.005
성별 (남성=0)		0.052 *	0.040 *	0.027
연령		-0.002 *	-0.039 *	0.001
사회참여 여부 ←				
불공정 인식		0.126 ***	0.099 ***	0.033
디지털기기 이용의 효용	정보공유	0.033	0.020	0.054
	의사소통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0.107 ***	0.115 ***	0.026
SNS 사용시간		0.001 ***	0.121 ***	0.000
정치성향	보수	0.081	0.045	0.055
	진보	0.215 ***	0.119 ***	0.055
교육수준		0.045 ***	0.140 ***	0.011
성별 (남성=0)		-0.180 ***	-0.107 ***	0.045
연령		-0.006 ***	-0.119 ***	0.002
직업	화이트칼라	0.115 *	0.068 *	0.061
	블루칼라	0.170 **	0.081 **	0.075

주1: \*\*\*은 유의수준 0.01, \*\*은 유의수준 0.05, \*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표본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임

둘째, 디지털기기 이용의 효용과 사회참여 여부 사이의 직접적인 상관관계 역시 효용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기기의 이용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더 많이 얻게 되는 것은 사회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에 디지털기기의 이용을 통해 의사소통기회 및 네트워크가 확장된 경우, 사회참여를 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공정 인식과 사회참여 여부 간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온·오프라인 사회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를 활용한 이설아(2021)의 연구에서도 실증한 바 있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사회의 불공정 수준에 대한 인식 증가는 사회적 부정의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개인적 수준의 정의감을 고양함으로써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생각해보면, 디지털기기의 이용을 통해 얻게 되는 정보공유 또는 의사소통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의 효용은 사회참여 여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 디지털기기 이용을 통해 얻는 효용은 불공정 인식수준에 매개되어 사회참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들 효용이 사회참여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들 변수 간 관계의 연결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디지털기기의 이용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사회참여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보공유에의 효용이 불공정 인식을 매개로 하여 사회참여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디지털기기의 이용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게 된 사람들은 불공정 인식이 높아지게 되고, 따라서 사회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디지털기기 이용의 효용 중 새로운 사람들과의 의사소통기회 확대 및 네트워크 확장의 경우, 사회참여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간접적 효과를 모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디지털기기의 이용을 통해 의사소통기회가 확대되고 네트워크가 확장될수록 사회참여에의 가능성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양(+)의 관계는 불공정 인식의 매개효과에 의해 다소 상쇄되었다. 이는 디지털기기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디지털기기 보급의 확대로 사람들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류할 기회가 증가하였고, 이로써 개인의 민주적 역량이 증가하게 되었다(이상신, 2015; Mossberger et al., 2007; Wang, 2022; Gil de Zúñiga et al., 2012).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효과는 사회참여에의 욕구를 증진하는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더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개인의 정치·사회적

신뢰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기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를 고양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정 수준을 높게 평가하게 만들 수 있고, 이로써 사회참여에의 욕구가 다소 상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들은 모두 예상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정치성향이 진보적일수록 우리 사회를 더욱 불공정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불공정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성향이 진보적인 사람들이 중도,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에 비해 사회참여에 적극적일 확률이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무직·관리전문직보다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회·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NS 사용시간이 길수록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b>직접효과</b>		
정보공유 → 사회참여	0.033	0.054
의사소통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사회참여	0.107 ***	0.026
<b>간접효과</b>		
정보공유 → 불공정 인식 → 사회참여	0.013 **	0.006
의사소통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불공정 인식 → 사회참여	-0.012 **	0.004
<b>총효과</b>		
정보공유 → 사회참여	0.046	0.055
의사소통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사회참여	0.096 ***	0.027
정보공유 + 의사소통기회 및 네트워크 확장 → 사회참여	0.142 **	0.060

주1: \*\*\*은 유의수준 0.01, \*\*은 유의수준 0.05, \*은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주2: 표본가중치를 반영한 결과임

## V. 결론

본 연구는 2020년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디지털기기 이용의 긍정적 효용이 사회참여 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하였다. 특히 두 변수 사이의 직접적 관계뿐 아니라 불공정 인식으로 매개되는 효과까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디지털기기를 통해 새로운 뉴스나 정보, 지식 등을 더 많이 얻게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우리 사회가 더욱 불공정하다고 인식했고, 이것이 그들이 사회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이끌었다. 또한, 디지털기기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의사소통할 기회가 증가한 사람들은 사회참여를 할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불공정 인식의 매개효과로 인해 다소 상쇄되었는데, 이는 의사소통기회 증가 및 네트워크 확장이 오히려 사람들의 불공정 인식을 낮추어 사회참여 필요성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디지털기기의 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인 정보 공유의 증가와 의사소통 기회 및 사회적 네트워크의 확장은 개인의 온·오프라인 사회참여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의 의의를 지닌다. 첫째, 그간 디지털기기의 사용 증가가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디지털기기 이용을 통한 인간의 경험들이 어떻게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지닌다. 본 연구는 디지털기기의 사용을 통해 개인이 얻는 효용과 그들의 사회참여 여부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어 ‘불공정 인식’이라는 매개변수를 포함함으로써, 디지털기기 이용과 사회참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더욱 정교한 이론적 해석을 제공하는 데에 기여했다. 특히,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서울특별시는 2021년 「2030 서울비전」에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이라는 구호를 포함할 정도로 ‘공정’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비단 이론적 기여뿐 아니라 정책적 통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함으로써 디지털기기 사용에 대한 효용과 불공정 인식, 사회참여 사이의 직·간접적 영향과 그 경로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모형을 설계하였고, 이것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최근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온라인에서의 사회참여와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참여가 서로 다른 경향성을 지닐 수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Min and Wohn, 2018; Wang, 2022). 예를 들어, 미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에서의 뉴스 소비와 사회참여 사이의 관계를 실증한 Wang(2022)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소비가 투표와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사회참여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온라인 사회참여에는 유의한 양(+)의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참여를 분리하여 디지털기기 사용의 사회참여에의 효과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외생변수는 ‘디지털기기’의 효용으로, 해당 디지털기기를 통해 실질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소셜미디어에 주목한 많은 선행연구는 소셜미디어의 종류에 따른 기대효과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Choi, 2016). 예를 들어, 블로그는 유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주로 이루어지지만,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이견 노출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디지털기기를 이용하여 어떤 플랫폼을 통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이것이 사회참여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으며, 설사 이들 모두 사회참여를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경로가 다를 수 있다(Kim and Chen, 2016). 이와 같은 점에서, 단순히 '디지털기기'의 긍정적 효과가 아닌, 디지털기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효용을 조사한다면 더욱 풍부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원호·이정용·이정현. (2021). 「초연결사회X전환도시: 디지털시대의 민관협력」. 서울연구원.
- 문원기·이수범. (2015). 소셜미디어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국내 문헌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언론학보」, 59(4): 133-62.
- 박현아. (2021). 표본조사에서 크론바흐알파값을 사용한 신뢰성. 「응용통계연구」, 34(1): 1-8.
- 서울특별시. (2020). 「서울시 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서베이)」. 서울특별시.
- \_\_\_\_\_. (2021). 「2021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 (2020년 기준)」. 서울특별시.
- \_\_\_\_\_. (2022). <https://democracy.seoul.go.kr/front/intro/faq/induList.do>(검색일: 2022.06.01.)
- 송경재. (2020). 한국의 소셜미디어 사용과 다층적 참여 시민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연구」, 29(2): 153-82.
- 슬로워크. (2019). “책임감 있게 화내기 위해 시빅해킹을 합니다.” 슬로워크(Slowalk)블로그. <https://slowalk.com/2591>(검색일: 2022.06.01.)
- 우리말샘. (2022). “디지털 기기,”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60bfde96faf47019f4d0f2da839fe77>(검색일: 2022.06.15.).
- 우종필. (2015a). 구조방정식모델에서 통제변수를 사용한 연구모델의 분석: 채널연구에서 힘, 만족, 장기지향성을 중심으로. 「유통연구」, 20(3): 43-62.
- \_\_\_\_\_. (2015b). 「우종필 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 아카데미.
- 이상신. (2015). 소셜미디어와 숙의민주주의의 가능성. 「한국정치연구」, 24(1): 169-99.
- 이설아. (2021). 「불공정 인식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혜림·이영라. (2020). 시민참여 유형과 특성의 변화 분석, 「행정논총」, 58(1): 245-69.
- 전재민. (2021). “다양한 사람과 ‘간부’맺는 것의 의미 - 인간관계의 영향력”.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 <https://hrcopinon.co.kr/archives/20195>(검색일: 2022.06.01.)
- 통계청. (2022a),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 통계청. (2022b), 「인터넷 이용률」. OECD.
- 카스텔. (2014). 「커뮤니케이션 권력(Communication Power)」. 한울아카데미.
- Baek, Young Min. (2015). Political Mobilization through Social Network Sites: The Mobilizing Power of Political Messages Received from SNS Friend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4: 12-9.

- Bode, Leticia, Emily K. Vraga, Porismita Borah, and Dhavan V. Shah. (2014). A New Space for Political Behavior: Political Social Networking and Its Democratic Consequences.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9(3): 414-29.
- Chan, Michael, Hsuan-Ting Chen, and Francis LF Lee. (2021). Cross-Cutting Discussion on Social Media and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A Cross-National Examination of Information Seeking and Social Accountability Explanations. *Social Media+ Society*, 7(3): 1-13.
- Choi, Jihyang. (2016). Differential Use, Differential Effects: Investigating the Roles of Different Modes of News Use in Promoting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21(6): 436-50.
- Choi, Yeon-Tae, and Gyeong-Hoan Kwon. (2019). New Forms of Citizen Participation Using SNS: An Empirical Approach. *Quality & Quantity*, 53(1): 1-17.
- Conroy, Meredith, Jessica T. Feezell, and Mario Guerrero. (2012). Facebook and Political Engagement: A Study of Online Political Group Membership and Offline Political Engagemen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5): 1535-46.
- Dalton, Russell J. (2015). *The Good Citizen: How a Younger Generation Is Reshaping American Politics*. CQ Press.
- Deth, Jan W. van. (2021). What Is Political Participation.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Political Communication*, 49(3): 349-67.
- Edgerly, Stephanie, Emily K. Vraga, Leticia Bode, Kjerstin Thorson, and Esther Thorson. (2018). New Media, New Relationship to Participation? A Closer Look at Youth News Repertoire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95(1): 192-212.
- Fornell, Claes, and David F. Larcker.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ibson, Rachel, and Marta Cantijoch. (2013).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Participation in the Age of the Internet: Is Online Political Engagement Really Different to Offline?. *The Journal of Politics*, 75(3): 701-16.
- Gil de Zúñiga, Homero, Nakwon Jung, and Sebastián Valenzuela. (2012). Social Media Use for News and Individuals' Social Capital, Civic Engage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7(3): 319-36.
- Gladwell, Malcolm. (2010). Small Change: Why the Revolution Will Not Be Tweeted. *The New Yorker*, September 27, 2010. <https://www.newyorker.com/magazine/2010>

- /10/04/small-change-malcolm-gladwell(검색일: 2022.06.01.)
- Hair, Joseph F., Rolph E. Anderson, Ronald L. Tatham, and C. William.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Harlow, Summer, and Lei Guo. (2014). Will the Revolution Be Tweeted or Facebooked? Using Digital Communication Tools in Immigrant Activism.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9(3): 463-78.
- Kim, Yonghwan, and Hsuan-Ting Chen. (2016). Social Media and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The Mediating Role of Exposure to Cross-Cutting and like-Minded Perspectives. *Telematics and Informatics*, 33(2): 320-30.
- Lam, Long W. (2012). Impact of Competitiveness on Salespeople's Commitment and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5(9): 1328-34.
- Le Dang, Hoa, Elton Li, Ian Nuberg, and Johan Bruwer. (2014). Understanding Farmers' Adaptation Intention to Climate Change: A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Study in the Mekong Delta, Vietnam. *Environmental Science & Policy*, 41: 11-22.
- Lee, Jayeon, and Teresa A. Myers. (2016). Can Social Media Change Your Mind? SNS Use, Cross-Cutting Exposure and Discussion, and Political View Change. *Social Media Studies*, 2(2): 87-97.
- Lu, Yanqin, and Jessica Gall Myrick. (2016). Cross-Cutting Exposure on Facebook and Political Participation: Unraveling the Effects of Emotional Responses and Online Incivility. *Journal of Media Psychology: Theories, Methods, and Applications*, 28(3): 100-10.
- Min, Seong Jae, and Donghee Yvette Wohn. (2018). All the News That You Don't like: Cross-Cutting Exposur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Age of Social Media.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3: 24-31.
- Mossberger, Karen, Caroline J. Tolbert, and Ramona S. McNeal. (2007). *Digital Citizenship: The Internet, Society, and Participation*. MIT Press.
- Neo, Rachel L. (2019). Mediation or Moderation? Examining How Politically like-Minded and Dissimilar Conversations Influ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Media Political Information Consumpt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Communication Studies*, 70(2): 151-71.
- Petrović, D., and M. Bešić. (2017). Influence of Online Activism onto Traditional Models of Political Participation. *Science, Business, Society*, 2(2): 88-91.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 Rosseel, Yves. (2014). *The Lavaan Tutorial*. Department of Data Analysis: Ghent University.
- Schermelleh-Engel, Karin, Helfried Moosbrugger, and Hans Müller. (2003). Evaluating the Fit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Tests of Significance and Descriptive Goodness-of-Fit Measures. *Methods of Psychological Research Online*, 8(2): 23-74.
- Skoric, Marko M., and Qinfeng Zhu. (2016). Social Media and Offline Political Participation: Uncovering the Paths from Digital to Physical.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28(3): 415-27.
- Vaccari, Cristian, and Augusto Valeriani. (2018). Digital Political Talk and Political Participation: Comparing Established and Third Wave Democracies. *SAGE Open*, 8(2): 1-14.
- Wang, Luxuan. (2022). Race, Social Media News Us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 Politics*, 19(1): 83-97.

---

**조민지:** 현재 Portland State University의 Urban Studies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로는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협력적 거버넌스, 사회정의 등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Ableism in Communicative Planning: An Autistic Perspective”가 있다. (E-mail: minji2@pdx.edu)